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보시였다.

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져주시 기 위하여 군수공업전선의 최진두에 서시여 불같은 헌신과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새형의 주체무기개발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발동기를 완전히 우리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함으로써 국방공업건설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제작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이른새벽 몸소 서해위성발사장에 나오시여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 실태를 세심히 료해하시고 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속에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게 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전략무기개발사업을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자기들과 함께 무수한 날과 밤을 보내시며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명철한 가르침을 주시던 위대한 스승의 정력적인領導의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한초한초 혁사적인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은



연소실의 추진력특성과 타빈쁨프장치, 조절계통, 각종 변들의 동작정확성, 구조적안정성과 밀음성을 비롯한 대출력발동기의 전반적인 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시대에 오르시여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순간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대출력발동기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져나왔다.

시험결과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완전히 우리식으로 설계제작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 발동기동작 전 과정에서 연소실의 추진력특성과 타빈쁨프장치, 조절계통들을 비롯한 모든 계통들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하여 안정하게 유지되었으며 구

조적밀음성도 충분히 보장된다는것이 확증되었다.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게 시험과정을 주시하던 일군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성공적인 과학기술적지표들에 접하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며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열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전사들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 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리ipp고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케트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혁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가 개발완성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세계적수준의 위성운반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로케트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혁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수공업전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례없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어 천만군민의 혁명적대진군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사강국, 우주강국의 눈부신 령마루에 높이 올라선 우리 조국의 승리에는 주체무기개발완성을 위해 열혈의 심장을 아낌없이 다 바쳐 투쟁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슴배여있다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 숨은 애국자들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시험에 참가한 국방과학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